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3. 4. 25(목) / 제한없음		
배포일	2013. 4. 25(목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 (880-5054)
담당부서	국제협력본부	문의	국제협력본부 박선주 실장(880-8692)

제 목: 서울대학교, 세계은행과 MOU 체결

□ 서울대학교는 2013년 4월 24일(수, 현지시간) 워싱턴에서 오연천 총장과 김 용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은행(World Bank)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. 이번 세계은행과의 협약체결은 지난해 김 용 총재의 서울대 방문 이후 논의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, 올해 3월 세계은행 실사단이 서울대를 방문하여 협력분야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다.

□ 서울대와 세계은행은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 공유, 공동협력 사업 추진, 협력분야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, 컨퍼런스 개최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 특히 이번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의과대학, 공과대학, 농업생명과학대학, 보건대학원, 행정대학원 등과 함께 보건, 의료, 기술, 농업, 공공정책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.

□ 이번 협약 체결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함께 원조의 대상에서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,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 서울대가 선도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도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.

□ 세계은행은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경제부흥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,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. 세계은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(IBRD)과 국제개발협회(IDA) 등 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

며 IBRD 187개국, IDA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.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을 지낸 김 용 총재는 2011년 1년 동안 서울대학교법인설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으로 봉사한 바 있으며, 지난해 10월에는 서울대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. (2012년 10월 학생과의 간담회 주요 내용 참조)

*** 참고자료: 세계은행 총재와 서울대 학생 간담회 주요 내용(2012. 10. 16)**